

2008 새해설계 ④

포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김나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복지증진 봉사활동

각 읍면동 조직 활성화로 재향군인회 사업추진 도움

“환경정화활동과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남성회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재향군인회 여성회 김나은(50·사진) 회장은 “2008년에는 회원1인당 1명씩 배가운동을 실시하여 더 많은 회원체제로 여성회를 운영하고 매사에 내일처럼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군여성의 목표는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평화통일운동의 선봉,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다.

여성회원의 자격은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을 갖춘 여성과 재향군인회 회원의 가족인 부인, 며느리, 딸 등으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여성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마음은 있지만 활동이 미약할 때가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아직은 미약하지만 한내전에서 호명골까지 매일

실시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나서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여성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향군인회가 지향하는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포천시 재향군인회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각읍면동 조직이 미약한데 앞으로는 각읍면동 조직을 갖추고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문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활동이라도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BS포천시지부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 회장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 교문 1명, 총무 1명 등 임원들과 함께 포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도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BS포천시지부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 회장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 교문 1명, 총무 1명 등 임원들과 함께 포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화제의 인물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어려운 대체의학 2년 과정 마치고卒業

3월부터는 대신대학교 CEO과정에서 공부

평범한 주부가 전공자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대체의학 2년 과정을 마치고 영광의 졸업식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54·사진) 단장으로 2월22일 대신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대체의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 박 단장은 2년 과정을 통해 경락사 자격증, 명상2급,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자녀들이 돈을 모아 납부해주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한다. 공부할 때 즐거움은 하나하나 마스터 할 때마다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내가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평소 소아 학구열이 높아 그동안 여성회관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으며 꽃꽂이 사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여성회관에 개설된 과목을 두루 섭렵한 박 단장은 이제 대신 대학교에 눈을 돌렸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에 나서다 보면 여기저기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대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의학과정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중의학, 분초학, 체질학, 침구학, 최면요법, 아로마향기요법, 예술심리치료 등 다양한 과목을 겨우 2·일요일을 활용해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용어와 한문 등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는데 중증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토요일 6시간, 일요일 12시간 등 겨우 18시간을 2년간 공부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생활철칙입니다”라고 밝히는 박 단장은 “나의 분신 1남3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로서도 최선을 다해 집도 4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다.

포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부위원장,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여성국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위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은광배드민턴클럽 교문으로 활동중인 박 단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잘 먹는다”에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 온 부부와 한 가족처럼 지내는 박 단장은 앞으로 공부 계획에 대해 “대신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CEO 과정에서 공부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밝히 공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금호생명에서 20년간 살기 위해서 일했다고 밝히는 박 단장은 36세가 걸쳐 금호대상을 수상했으며 성실하게 살고 남이 인정해주는 만큼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정주부의 단아한 筆力 돋보여

‘이은미 푸른 뜰에 서다’ 출판기념회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며 써 온 글들을 모아 ‘이은미 푸른 뜰에 서다’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월23일 오후 3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저자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는 “2005년부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작은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 항상 뒤에 서서 묵묵히 지켜봐 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효정 포천신문 대표이사는 축하사를 통해 “이은미 이사는 그동안 은미의 쫄쫄이 이야기, 목장 탐방이야기를 연재해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녀들이 독후감 평가를 포천신문에 연재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쓴 글을 오늘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효중 (사)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장은 “6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인에게 내세울만한 일을 해 준 게 없는데 오늘 이은미 씨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남편의 외주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글을 세상에 내어놓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양기원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원의 축하사이에 이어 안익수 시인의 축사, 윤종성 포천신문 자원위원의 색소폰 연주, 축하케익 전달,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배제에 나선 윤순옥 전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은 “이은미 씨를 만난 시간은 짧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 더욱 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건배제를 했다.

이은미 푸른 뜰에 서다는 제1부 아름다운 삶의 길을 위하여, 제2부 영전목장 편지, 제3부 은미가 전하는 가산이야기, 제4부 아름다운 동행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남편 김정식, 이은미 주부명예기자, 어머니 윤춘희, 아버지 이영우씨의 기념촬영.(시계방향)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한화리조트/산정호수 사회공헌활동 계속

한화리조트/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2008년도 첫 사회공헌활동을 한화그룹의 공동사업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사업대상인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함께 실시했다.

한화리조트는 노아의 집과 2006년부터 3년간 총3천만원을 지원해 매월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 및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은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명을 ‘해피 하우스’로 정하여 한화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월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문화야 놀자’로 정해 가족 뮤지컬을 관람하도록 했다. 1월29일 아동들과 함께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에서 ‘프린세스 파티(Princess Party)’를 관람했다.

프린세스 파티(Princess Party)는 세계적인 명작동화인 공주 이야기들을 현대적 코드로 재구성하였으며, 어린이들 겪을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차별과 상처가 친구를 사랑하는 진정한 우정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 재미와 함께 감동을 주는 가족 뮤지컬이다. 뮤지컬 관람을 통해 아동들은 공연관람에 대한 예절교육은 물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반응을 얻었다.

2월에는 설을 맞이해 ‘한과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2월5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2008년도 첫 사회공헌활동을 한화그룹의 공동사업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사업대상인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함께 실시했다.

일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한과 문화박물관에서 박물관을 견학한 뒤, 한과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한화봉사자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강정에 조정을 발과와 산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만든 한과를 맛있게 시식을 하기도 했다. 설을 앞두고 아동들과 전통한과를 만들며, 우리전통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오는 3월에는 ‘아름다운 입학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0명의 삼정초등학교 특수학급 입학 아동들의 입학준비를 도와 입학식에 참가할 계획이다.

조용하 한화리조트/산정호수 본부장은 “2008년에도 한화봉사단은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이야기

은사님의 초대

“어보세요?” “미경씨? 나 오영근 아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의 전학이 때문이죠.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경씨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요... 당연히 제자인 제가 모셔야죠.” “아니...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영근 선생님은 영북초교 재학 시절 직접 가르쳐주신 은사님이십니다. 고교시절 은사님으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북면과 영증면에서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북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지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또 한 분의 은사님이신 박동규 영북노인대학장님께서 저에게 노인대학에서 강의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나 나를대로 신경이 많이 쓰여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대중가요를 게임 하듯이 부르도록 가르쳐주신 오영근 선생님의 방법이 생각나 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시며 재미있게 제 강의를 따라 주셨습니다.

강의 끝머리에, 저의 은사님이신 노인대학장님께서 저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며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노래도 저의 고등학교시절 은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한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도 영북초교에서 선생님이로 근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함을 여쭙자 오영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선생

님의 어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시며 저에게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선생님께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후 차과에 들렀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선생님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인사를 드리고 제가 살아가는 근황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선생님께 초대를 받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을 이제 제가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그날 선생님께서 사주신 점성에 대해 최고의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웰빙 부사의(不思意) 행복(幸福)과 분수(分數) 43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賢明)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幸福)한 사람은 분수(分數)가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진리(眞理)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분수(分數)가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얼른 대답이 안 나올 것이다. 분수(分數)란 것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能力)에 알맞게 사는 것이다. 욕심도 내지 않고 시샘도 내지 않고 수수하게 사는 것이다. 탐욕(貪慾)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여윌하게 사는 것이다.

분수(分數)란 것은 자신의 노력(努力)으로 산다는 것이다. 탐욕(貪慾)을 버리고 남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위선(僞善)이나 도성(盜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탐(貪)을 버리고 여윌게 사는 것이다. 거둔 만큼 향유(享有)하는 것이고 거둔 만큼 즐기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幸福)한 사람은 분수(分數)가 사는 사람이다”

이다. 남친 만큼 주는 것이고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가운데 적선(積善)하는 것이다. 적선으로 복(福)을 받고 적선으로 명(命)을 받는 것이다. 분수(分數)가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이유이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주(四柱)라 부르는 심명공식(心命公式)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마(李濟馬) 선생이 창안한 사상체질(四象體質)이다. 사주는 과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주는 정확한 과학(科學)이다. 심명공식은 과학이다. 심명공식은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태어난 장소(場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時間)과 공간(空間)과 질량(質量)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바로 삼재(三才)가 되는 것이다. 태어난 장소(場所)가 곧 공간이 되는 것이고 태어난 시(時)가 곧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人)이 곧 질량이 되는 것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 어찌 과학이 아닌가? 사람은 태어난 순간 그 운명(運命)이 결정되는 것이다. 태어난 순간 우주(宇宙)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秩序)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심명공식을 보면 목(木)이 잘된 사람이 있고 또 흙(土)이 잘된 사람이 있고 하면 불(火)이 잘된 사람이 있고 하면 금(金)이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水)이 잘된 사람이 있다. 이를 오행(五行)이라 부르는데 이 오행에 따라 사람의 속성(屬性)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목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추진력(推進力)이 강하고 화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창의력(創意力)이 강하며 토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친화력(親和力)이 강하고 금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수리력(數理力)이 강하다. 이 같은 오행의 기질로 자신을 알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속성은 또 그 사람의 체질(體質)과도 관련이 깊다. 이제마 선생이 말한 사상체질이란 소음(少陰) 소양(少陽) 태음(太陰) 태양(太陽)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을 말하는 것이다. 소음인은 비교적 몸이 찬 사람을 말하고 소양인은 몸이 뜨거운 사람을 말하며 태음인과 태양인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인은 인내심이 강하다. 소양인은 친화력이 강하다. 태음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냉정하다.

통계를 보면 석·박사(碩博士)의 80~90%가 소음인이다. 그만큼 인내(忍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명 외교관의 80~90%는 소양인이다. 임기응변(臨機應變)과 창의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태음인은 물타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 만사 튼튼이 제일이다. 옛 문헌에 양반은 결박을 찢지 않는다 했다. 태양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당장 죽어도 구차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의 ‘심명공식과 체질’을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이규연 민족생체학연구원장

사탕은 싫어요!

7살 난 어린 아들이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입을 벌리고 침까지 흘리면서 힘들게 잠을 잔다. 그래서 코를 막고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 아침 일찍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편도선비대증이라고 했다.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니 얼마로서 잘 챙기기로 했다. 그런 것 같지만 아직도 미안했다. 처방전과 함께 사탕이 내 손에 들어왔지만 나는 얼른 주머니에 숨겨버렸다.

심란한 마음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으니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에게 또 사탕을 권한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약간의 아토피 성취부염이 있고 유치(어릴 때 나는 피부병)를 앓아왔던 기억이 있다. 받은 상담사탕은 절대 금물이란다. 4살 때에 사탕이 목에 걸려서 혼이 난 기억도 있지만 사탕이 보이지 않지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지 못했어라는 사이 아들은 사탕이 넘겨졌다. “아들기분이 저렇게 좋으니 하나만 허락해줘!” 하면서 약국을 나왔다.

4살 때 신경치료를 하고 새로 심었던 앞니를 제거하기 위해 잠시 치과에 들렀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갔지만 이빨을 뽑고 나니 영

감을 했다.

그런데 수술 준비를 위한 검사로 피를 뽑았는데 선생님께서 기특하다고 또 사탕을 주신다. 이 노릇을 어쩌랴! 저 사탕을 먹으면 눈물이 밤을 재대로 안 먹을 텐데...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사탕은 다음에 먹자고 설득했다.

요즘처럼 아이들의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비만과 충치 그리고 아토피성피부염이나 우리아들처럼 편도선 비대증으로 힘들어하게 아이에게는 사탕발림 같은 사탕으로 칭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굳이 아이에게 치료받느라 힘들었다고 무료의 상을 주려거든 아이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지... 비타민제나 무설탕 껌 또는 웰빙 쌀 과자 등. 아니면 장난감 자동차나 반지 등의 선물을 어떻게?

다른 엄마들은 이 의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특별히 내 아이만 사탕이 그토록 안 좋은 걸까?



유경자 주부명예기자단 단장